



남원시, 청소년 기관 상호협력 협약 체결

남원시청소년수련관(관장 류진호)과 청소년문화의집(관장 서대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일신) 등 3개 청소년 기관은 지난 달 31일 청소년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각 기관은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지원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지원협력 ▲상호 기관의 발전과 공동목적 이르기 위한 사업추진 등 지역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를 향상 시키기 위해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다. 여성가족과 김순복 과장은 "청소년들이 전문성과 다양성을 두루 갖춘 양질의 프로그램을 경험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각 기관이 동반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성수면, 아름다운 성수·만들기 운동

진안군 성수면(면장 이기호)은 2일 면 소재지 일원에서 아름다운 성수 만들기 위한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국토대청결 운동은 성수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윤재득)와 면사무소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면 소재지 안팎에서 일대를 중심으로 각종 쓰레기 및 오물 수거와 꽃나무 심기 활동에 나섰다. 또한 주민들에게 '쓰레기 3NO 운동(안버리기 안태우기 안묻기)' 실천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같이 펼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수도사업소, 우수기관 상급 장학금 기탁

남원시 수도사업소는 환경부가 주관한 수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업소로 선정되며 받은 포상금 300만원을 지난 1일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기탁하며 주목받았다. 이번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1차 기본평가 및 현장평가, 2차 자료검증을 통해 상위 20% 기관을 선정, 3차 환경부 종합평가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1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경영개선, 수돗물 음용률 향상 및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 등을 평가한 것으로 남원시는 3개분야 27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원의 미래 인재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지역사회의 희망으로 자랄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다른 고향사랑 선행 '화제'

무주군 이영오씨, 고향마을 쓰레기 수거 봉사활동 귀감

무주군 한 주민이 지난해부터 실천면 고향마을을 찾아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봉사활동을 펼쳐 화제다. 주인공은 바로 무주읍에 거주하는 이영오씨(55)다.



이 씨는 "어렸을 때 지났던 고향 실천면 미천리 중미마을을 방문했는데 하천 등에 폐비닐 등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수거했다"라고 봉사활동 동기에 대해 짧게 말했다. 해의 근조자인 이 씨가 휴가차 고향을 방문하고 살던 고향집과 마을 주변에 방대한 쓰레기로 뒤덮여 있어 차마 지나갈 수 없었다는 게 또 다른 이유였다. 이에 이 씨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매주 2~3회씩 시간이 날 때마다 실천 미천리 일대 내북마을, 외북마을, 미천마을에서 쓰레기를 줍는 선행을 펼쳤다. 그가 이들 마을 외에도 그동안 수거한 쓰레기는 미천리 독가촌, 미천회관 주변의 빈집, 하천 등에서 수거한 량도 100.1, 50.1, 쓰레기 종량제 봉투 300여개 분량에

달한다. 손수 자가용을 이용해 폐비닐과 빈병 등 쓰레기를 치웠다. 수거한 쓰레기양이 많아 도저히 혼자 감당하지 못할 경우엔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수거에 열정을 쏟았다. 쓰레기봉투 구매도 이 씨가 해결했다. 그의 이 같은 노력과 헌신적인 봉사로 자신이 거주했던 마을 하천과 주변이 비교적 청결해 졌다. 그는 "폐비닐과 깨진 빈병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할 당시 견디지 못할 악취에 시달렸지만 고향 마을과 주변 하천이 예전보다 청결하고 보기가 좋아 보람되고 기쁘다"고 소감을 들려줬다. 그는 틈이 날 때마다 고향에 한 번씩 들러 계속 쓰레기 수거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 1990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유조선 기관사로 일하고 있으며, 20년 전 결혼과 함께 정든 고향을 떠나 무주읍 일대 아파트에 동지를 뒀다. 그는 무주에서 달콤한 휴가를 끝내고 다시 조만간 삶의 현장인 싱가포르로 향해야 한다. 평소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그는 무주고등학교와 전남 목포 해양대학교를 졸업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크린텍 김종학대표 마스크 3만1200장 기부

진안군은 지난 2일 마스크 제품생산과 관리를 주로 하는 (유)크린텍(김종학 대표)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마스크 기부식을 군수실에서 가졌다. 이날 기부식에서 (유)크린텍은 생산하는 KF94마스크 약 3만장(2천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이는 날씨에 따듯해지면서보다 많은 야외활동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마음에서 기부를 하게 됐다.



정전면 봉하리 신촌마을 출신의 김 대표는 항상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부와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장기간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시는데 작은 힘이 됐으면 한다"며 "지역주민 중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고향을 잊지 않고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 마스크를 기부해 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다"며 "고향을 사랑하는 출향인의 기부에 힘입어 군민의 코로나19 예방과 안정적 일상생활 유지에 행정에서도 온 힘을 보탤 것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예수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61병동 개소

예수병원이 지난 1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61병동 개소식을 가졌다. 예수병원은 71병동, 72병동에 이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에 61병동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확충 운영을 시작했다. 본관 6층에 위치한 61병동은 1인실 겸 격리실 2실, 4인실 1실, 6인실 5실 등 전체 36병상 규모의 병상을 갖추고 간호사 18명, 간호조무사 6명, 병동지원인력 6명 등 총 30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전문침대, 이동용 좌변기, 목욕의자, 이동용 서브스테이션, 면담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예수병원 관계자는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불리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추가 개설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입



원환경을 조성하고 입원 치료 본연의 목적에 집중해 환자와 보호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익산병원,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제공서비스

익산병원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선다. 익산병원은 (해남북하나개발원과 북한이탈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익산병원은 이번 협약을 따라 윈스톱 건강검진, 우선예약, 입원·외래·기타 진료시 본인부담액·비급여 검사료 감면, 예방접종 감염, 장례식장 이용시 부대 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신상훈 병원장은 "익산병원은 의료취약계층과 지역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협약을 통해 탈북민과 그 가족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임실 이장협의회, 강준희 회장 연임 새출발

임실군 이장협의회가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12개 읍·면 회장·총무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갖고 새로이 2021년도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 강준희(65) 임실군 이장협의회장이 만장일치로 연임되었으며, 그동안 최동선 임실농협조합장의 사퇴로 인해 공석이었던 수석부회장에 백석기 신임 수석부회장이 선출되었다. 또한 윤순호 부회장, 김종규 사무국장은 강준희 회장과 함께 만장일치로 연임되었다. /임실=진종영 기자

정읍경찰, 성폭력·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는 지난 1일 정읍 근로복지회관 내 드림스타트에서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30명 대상으로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성폭력 교육은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유형, 실제 신고 접수된 청소년들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예방수칙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아동학대 교육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피해이동 보호절차 및 3. 30. 시행되는 아동복지법(즉각분리제도) 주요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아동학대 특별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이동 조기발견 및 보호하기 위함이다. /정읍=곽대태 기자

김제경찰, 어린이 안전구역 만들기 홍보 전개

김제경찰서(서장 김상형)는 지난 2일 김제동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경고장(3단 홍보전단지)'을 활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안전경고장'은 보행자 특히 아이들의 교통사고위험의 가장 큰 원인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만들기 위해서 제작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차량에 계통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에는 경고장이 되고 주행 차량에겐 보행자를 주의하게 만드는 안내장(경고장)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를 지키기 위한 경고장이다. 또한 이날 홍보활동을 하며 지자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합동 단속도 병행했다. /김제=곽대태 기자

무주경찰, 여성 안심 비상벨 정기점검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빈중석)는 무주군 읍·면에 설치되어있는 여성 안심 비상벨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여성안심 비상벨은 여성화장실 내부 칸막이마다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화장실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 점등과 경보음이 울리면서 동시에 경찰서 112종합상황실로 연결돼 인근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 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서 범죄예방단팀(pp)은 관내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여성안심 비상벨(30개소, 135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무주군청 안전재난과와 합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진단 및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미작동 비상벨을 수리하고 미설치 공영 여성화장실에 추가 설치 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